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질 높인다

전국 최초로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금도 지급

진도군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말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23만원)와 교통비(최대 52,000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1일 최대 40,000원)도 추가 지원한다. 교육 문의는 진도군 출산장려담당(540-60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관리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전문가이다.

진도군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양성을 통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과 관내 산모와 영유아의 질적 건강관리 향상이 기대된다"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출산·양육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함께 진도군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의회 곽태수 의원, 지역 청소년이 준 뜻 깊은 '감사패'

2015년부터 3년간 소통… "앞으로도 최대한 지원"

장흥군의회 곽태수 의원이 지난 15일 장흥청소년수련관 '꼭·다 배움터'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꼭·다 배움터는 '꼭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라는 의미로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곽태수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꼭·다 배움터 운영위원장을 맡아 청소년과 소통해왔다.

지역 청소년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 활성화에 공로를 인정받은 곽 의원은 평소 청소년들이 학교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및 생활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곽태수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아와 정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흥필 기자

진도홍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모두 안전'

주기적 위생 · 시설 점검 실시

진도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진도홍주가 '모두 안전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역본부에서 조사관이 직접 진도군 관내 4개 홍주 제조업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A' 법인을 제외하고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은 홍주 제조 공정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효탱크, 증류장치, 주입기 등 제조공정과 위생관리 등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올해초 진도군 관내 홍주 제조업체인 'A'법인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노후된 이송용 폴리염화비닐 호스류에서 검출되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된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문을 통해 'A'법인의 노후된 시설 교체 등을 지시해 시설개량이 실시중이며, 진도군은 주기적으로 고품질의 진도홍주 생산을 위해 위생·시설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발표로 진도홍주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가소제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고품질의 진도홍주를 생산,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홍주는 전통주로는 제1호인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하고 진도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군수품질인증제를 지난 2007년부터 실시, 고품질의 진도홍주를 제조·판매해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찾아가는 진로체험

퓨전요리 · 천연제품 등 내달 1일까지 43명 대상 진행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은 남악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청소년기 성장과 자기 진로 계발을 위해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겨울꿈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꿈방은 퓨전요리, 천연제품,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과정을 엄선하였으며 강사료, 재료비 등이 전액 무료로 제공되어 지역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높았다.

그동안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나, 남악과 먼 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남악 거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따랐다.

군 관계자는 "남악지역 청소년들이 겨울방학기간 동안 남악복합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제철 맞은 '겨울진미' 완도 매생이 수확

천연해독제 효과 "미세먼지에도 탁월"…전국 생산량 60%

겨울철 대표 음식 매생이가 미세먼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국 매생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완도군 고금, 약산 등에서 매생이 수확이 한창이다.

매생이는 조류가 완만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에서만 생산돼 대표적인 무공해 식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미세머지에도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생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 안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완도군의 설명이다. 또 기관지의 건조함을 막아주고 요오드와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기질과 비타민이 함유돼 알코올 분해 등 숙취해소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를 해독하는데 매생이가 효과가 있다"며 "완도 매생이로 입맛도 돋우고 건강도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새해 농업인 영농설계 지원

내일부터 30일까지 총 9회…친환경 농산물 생산 중점

여수시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한 해 영농설계를 돕는다.

시에 따르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 등에서 총 9회 실시된다. 대상은 지역 농업인 750여 명이다.

특히 올해는 농약 잔류 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해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된다.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를 통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농업인들의 인식 강화를 위한 다짐대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 첫 교육은 민승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맡는다. 민승규 강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지역 특화작목 위주의 품목별 영농기술, 농촌자원 활용, 농업경영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들도 이어진다.

세부 교육일정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하거나 농촌진흥과(061-659-443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송기홍 기자